

# 장흥군 신청사 건립 백지화

### 중앙정부, 지자체 청사 신축 조건 까다로운 요구 “청사보단 인재육성에 예산 우선 투자” 여론도

장흥군이 자체 재원으로 새청사를 건립 하려던 계획을 전면 백지화 했다. 장흥군은 그동안 10개년 계획으로 300억원을 들여 군 종합청사 신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위해 지난해 4월 충남과 전북지역 시·군 신축 청사를 견학한 데 이어 10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시 청사를 벤치마킹을 하는 등 자료수집을 마쳤으며 ‘청사 건립 기금운용조례안’도 군의회에 상정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시군 지자체의 청사 신축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청사를 새로 짓기 보다는 인재육성과 사회복지, 지역개발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흥군의회가 지난 3월 말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추후 종합 청사 신축을 추진하자는 공

문을 집행부에 보냈으며 장흥군도 지난달 군의회에 조례안 철회 공문을 발송했다.

장흥군 청사 신축은 전임 김인규 군수 시절부터 추진됐다.

당시 군 집행부는 오는 2016년까지 매년 공무원 급여인 인건비에서 20억~30억원을 삭감해 이를 적립하면 국·도비 지원 없이도 자체 재원으로 청사 건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 1977년 준공된 군청사는 낡고 비좁아 매년 2억~3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 공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도 2억9천만원으로 군수·부군수실과 상황실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장흥=김영기기자 kykim@



“무럭무럭 자라거라” 꽃게 종묘 방류 해남군이 송지면 해역에 부화한지 한달이 된 꽃게 종묘 8만마리를 방류했다. 해남군은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올해 5억원을 들여 조피볼락, 뽕장어 등을 방류할 계획이다. <해남군 제공>

### “해변 캠핑카에서 하룻밤 보내세요”

“해남 땅끝 푸른 바다와 별이 쏟아지는 해변 캠핑카에서 잊지 못할 하룻밤을 보내세요”

해남군이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송지면 송호해수욕장에 4인용 캠핑카(캐러밴) 10대를 설치해 예약 접수를 받고 있다.

캠핑카에는 침대와 화장실, 조리시설, TV, 에어컨 등

해남 송지 송호해수욕장

4인용 캠핑카 10대 설치

이 갖춰져 있으며 인근에 오토 캠핑장과 텐트 야영객을 위한 텐트촌도 조성돼 있다.

군 관계자는 “최신 캐러밴에서 푸른 바다를 보며 무더위를 식히려는 피서객들의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캐러밴에서 쉬면서 인근 땅끝과 해양자연사박물관 등을 둘러볼 수 있어 인기를 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료는 평일 8만원, 주말 10만원이다. 문의 (061-530-5258)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전주 ‘한지’ 공예품 교류전 나주 천연염색관 26일까지

나주 천연염색문화관이 오는 26일까지 다시면 회진리 천연염색문화관에서 전주 한지 공예품 교류전을 열고 있다.

이번 교류전은 전주 공예품 전시관이 나주 천연염색관과 지난해 상호 교류전을 갖기로 한 뒤 나주에서 갖는 첫 전시회다.

교류전은 친환경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지실을 이용한 의상과 침구류, 각종 소품 등 20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또 상설 전시관에서는 천연염색으로 물들인 각종 의류와 소품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버려지는 개 늘고 있다

### 담양군 6월까지 10건 달해 사료값 폭등·규제 강화 원인

광주지역 인근 농촌에 버려지는 개들이 늘고 있다.

담양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예년의 2배에 달하는 10건의 유기견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에만 3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사료값 급등 등 고물가로 인한 경기침체가 유기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월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유기견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고 외출시 목줄이나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유기견 처리도 쉽지 않다. 담양군의 경우 10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개를 사육하는 관내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양군은 무정면 일대에서 3개월간 배회하던 ‘폴리세이블’과 담양을 담당경찰서 주변에서 발견한 잡종견 등 2마리를 보호하고 공고로 통해 주인을 찾고 있다. 그러나 올들어 버려진 개 가운데 주인이 찾아가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 민선 4기 2년 결산과 과제

■이석형 함평군수

## ‘사계절 생태 관광 메카’ 자리매김

함평군은 나비로 통한다. 10여년간 개최해 온 나비 축제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제로 평가되면서 이제는 함평의 상징이 됐다.

특히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간 열린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로 130여만명의 관람객이 함평을 찾아 입장료와 임대 수익금 등으로 136억원의 직접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함평군은 그동안 쌓은 값진 성과와 성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자치단체로 만들어 나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토종 축제의 성공 아이템으로 자리를 굳힌 나비축제 및 대한민국 난 병목대전, 돌머리 갯벌체험, 꽃무릇 축제, 국향대전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사계절 생태 체험관광의 메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또 군립미술관 건립과 대동제 상류 생태관광지 및 사포 관광지 개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확대 구축하고



나비엑스포 직접 수익 136억

월이면 국가산단 유치 전력

한우산업 특구 지정 박차

나비고을을 예술인촌과 문화의 집 운영, 문화재 정비·복원 등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3단계로 나눠 시행하는 함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함평항 개발, 함로 준설 및 해양 마arina 시설 조성,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월야

면에 국가산단과 지방산단이 지정 유치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큰 피해가 예견되는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비 쌀’ 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한우산업 특구 지정, 해바라기 등 경관작물 재배 확대, 수출농업과 틈새농업 육성 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개편, 조직 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군정의 효율을 높이고,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초일류 자치단체를 지향하는 명품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석형 군수는 “세계나비·곤충 엑스포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새로 시작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남은 2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독자적 생태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기기자 pyj4079@

### 선거 후유증? 흥기 위험 행패



○차기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현직 농협 조합장이 선거기간 동안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

○무안경찰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 A모씨는 최근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자신을 돕지않은데 앙심을 품고 지난 7일 오후 8시20분께 모 일간지 사무실을 찾아가 이곳에 있던 전직 군의장 B모씨의 명함을 잡고 흥기로 위협.

○B씨는 “피해가 경미하고, 평소 잘 아는 사이라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일부 조합원들은 “A씨가 군의원 시절에도 담당 공무원을 구타하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 왔다”며 금지 않은 시선.

○한편 무안경찰은 “주민들 사이에 선거 후유증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피해자의 고소와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

/무안=대성수기자 dss@



### 여름밤에 떠나는 별자리 여행

정남진 천문관 22~8.17일까지 관측행사

장흥군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오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여름밤 관측행사를 개최한다.

주간에는 태양흑점과 홍염을, 야간에는 은하수와 여름철 별자리를 비롯해 구상성단, 달 분화구, 목성 등을 관측한다.

또 물 로켓발사를 비롯해 별자리 손수건 만들기, 야광 별자리판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이정화 천문과학관 연구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야간 테마관광지 조성으로 새로운 가족참여형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흥=김영기기자 kykim@

광주·전남 기능장학 大山프리모님네기발  
가발  
최신제품 70만원  
초슬림!!  
이탈가능할 만큼 자연스럽음  
귀여운 유행의 인기를 끌어주는  
영리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인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임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 무등산교구장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제1묘지 02-228-0100, 02-228-0106, 02-228-0108